

오늘부터 2월국회... 여야, 선거구 획정·쌍특검 대치

교섭단체 연설·대정부질문서 총선 앞 민심 여론전 나설듯 양곡법·노란봉투법 등 재표결 법안 6개... 민주, 신중 검토

2월 임시국회가 19일 시작된다. 특히 이번 임시 국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 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개발사업 '50억 클럽' 뇌물 의혹을 각각 수사할 특별검사(특검) 도입 법안의 재표결 여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이들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지난해 12월 28일 본회의에서 단독으로 처리했지만, 윤 대통령이 지난해 5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왔다.

하지만, 재의요구 시점부터 18일 현재까지 44일이 경과했는데 쌍특검법 재표결은 이뤄지지 않았

다.

21대 국회에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재표결에 부쳐진 법안은 모두 6개로, 재의요구 시점부터 재의결까지 걸린 기간은 양곡관리법 개정안 9일, 간호법 개정안 14일, 방송3법·노란봉투법 개정안은 7일이었다.

국민의힘은 이번 관례를 들어 야당에 신속한 재표결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이 표결을 미루는 것은 여론 내부의 분열을 노리는 총선 전략이라는 게 국민의힘의 주장이다. '김 여사 리스크'가 총선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을 최소화하겠다는 뜻으로도 읽힌다.

재표결의 키를 쥐는 민주당은 이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통화에서 "재표결 시점도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 결정해야 한다"며 "2월 임시회에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 공천 탈락자 등의 반란표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의 재의결에는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4·10 총선 선거구 획정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도 관심사다.

중앙선관위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지난해 12월 제시한 확정안은 서울과 전북에서 각 1석을 줄이고, 인천·경기에서 각 1석 늘리는 안이다.

국민의힘은 획정위원회를 최대한 존중해 조속히 처

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획정위원이 여당 강세 지역인 서울 강남은 손대지 않고 민주당 우세 지역 의석만 줄인다는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여야는 2월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질문 등을 통해 총선 승리의 당위성을 내세우는 여론전도 펼칠 전망이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21일 대표연설에서 거야(巨野)의 입법 독주를 비판하면서 정치 개혁과 국회 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한편, 민생법안 처리의 필요성 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앞서 20일 대표연설에서 25년 만에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일본에 뒤지는 등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민생경제가 침체했다는 주장을 통해 '경제 실정 심판론' 등을 내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22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대정부질문에서도 정부·여당과 야당은 대립각을 세울 것으로 점쳐진다.

국민의힘은 이번 대정부질문에서 민생에 방점을 두겠다는 방침이다.

의대 정원 확대와 이공계 지원 확대 등 분야별 민생 현안을 정부에 묻고, 필요하다면 관련 입법의 중요성도 언급한다는 계획이다.

반면, 민주당은 현 정부의 국정운영을 총체적 실패로 규정하는 만큼 이를 분야별로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6일 한국과학기술원 졸업식에서 녹색정의당 대선시당 대변인 신분의 졸업생이 윤 대통령에게 R&D(연구·개발) 예산 삭감을 비판하며 소리를 지르다 강제로 퇴장당한 일 등을 추궁할 가능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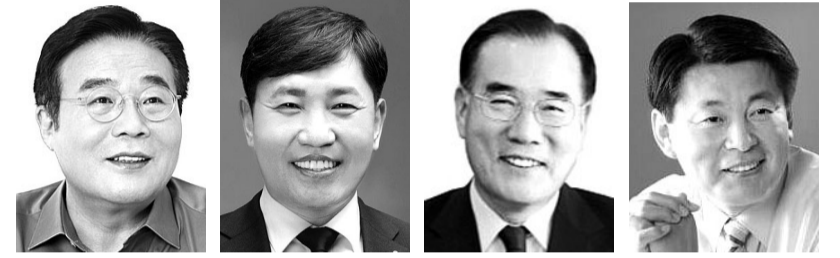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대통령실 선거 개입은 불법” 18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연 ‘윤석열 정권 관권선거 저지 대책위 제2차 회의’에서 서영교(가운데) 위원장 등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이병훈·조오섭·이개호·서삼석 ‘헌정대상’

더불어민주당 이병훈(동남을)·조오섭(북구갑)·이개호(담양함평영광장성)·서삼석(영암무안신안)의원이 법률소비자연맹이 선정한 ‘제21대 4년 종합 대한민국 헌정대상’을 수상했다.



이병훈 의원은 “4년의 의정활동을 성실하게 한 것에 대해 시민단체가 높이 평가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한다”면서 “앞으로도 주민 여러분의 뜻을 받들고, 주민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오섭 의원은 “4년간 종합의정활동 평가에서 ‘대한민국 헌정대상’을 수상한 것은 4년 전 북구 주민의 선택이 옳았음을 증명한 것이다”며 “힘있는 재선의원이 돼 주요 국책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고 중단없는 지역발전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이개호 의원은 “담양·함평·영광·장성 국회의원으로서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뛰었기 때문에 이번 헌정대상 수상은 믿고 성원을 보내주시는 지역민 여러분 덕분이다”면서 “총선에서 민주당이 압승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삼석 의원은 “국회 4년의 의정활동을 종합한 헌정대상을 수상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인구 및 지방 소멸에 대응하는 한편, 언제나 소금처럼 변함없이 사회적 약자인 농수축산림업을 대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민주 광주 광산을, 컷오프 후폭풍

김성진·최치현, 삭발·무기한 단식 돌입...광주 3곳 오늘부터 경선

더불어민주당의 광주 광산을 선거구 경선 후보 발표에서 컷오프된 예비후보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재심 결과를 앞두고 있지만, ‘꼼수 공천 심사’ 결과에 대한 근거 공개를 요구하며 상경투쟁에 이어 삭발에 무기한 단식 농성에 돌입하는 등 후폭풍이 커지고 있다.

김성진·최치현 광주 광산을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18일 “더불어민주당은 광주 광산을 꼼수 공천 심사 결과를 바로잡아달라”고 요청했다.

4·10 국회의원선거 민주당 광주 광산을 심사에서 공천 배제(컷오프)된 이들은 전날 민주당 광주시당

앞에서 삭발하고 무기한 단식 투쟁을 시작했다.

두 예비후보는 “현역 민형배 의원과 함께 경선 후보로 확정된 후보는 언론사가 공개한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한 자릿수의 약체 후보였다”며 “말만 2인 경선이지 사실상 단수공천이고 위장 경선이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민 의원은 시·구의원들을 동원해 아침 인사를 하는 등 중앙당의 ‘총선 후보자 공개 지지 금지 등 경선 중립 준수 지침’을 어기고도 어떠한 제재도 받지 않고 있다”며 “경선 중립 준수와 관련한 중앙당의 엄격한 조사와 조치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 유권자들은 이해할 수 없고 비상식적인 결과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며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는 경선(후보 선정) 과정을 소상히 공개하고 납득이 가는 근거를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8시에도 광주시당사에서 촛불집회를 열고 경선 과정 공개와 재심을 촉구했다.

앞서 지난 16일 두 예비후보는 경선 후보 발표에 반발하고 재심을 신청하기 위해 ‘상경 투쟁’을 벌였다. 이들은 “광주 민주당 관리당원은 물론 일반 유권자들과 언론에서조차 이번 공관위 결과를 의아해하고 있다”며 “심지어 광주와 호남을 무시한 처사라는 의견이 분분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민주당은 1차 경선 지역으로 발표된 광주 동남갑, 북구갑, 북구를 등 3개 선거구에 대한 경선 투표를 19일부터 21일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투표는 관리당원 50%, 일반 국민 50%가 참여하는 국민참여경선 ARS투표로 진행된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총선 브리핑

이정현 “호남-정부 연결 오작교 역할 할 것”

순천광양곡성구례을 출마 선언

이정현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이 최근 국민의힘 후보로 순천광양곡성구례을 선거구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 부위원장은 18일 출마선언문을 통해 “민주당과 다르게 정치의 전념을 삶의 전념으로 바꿔보겠다”며 “두 번의 청와대 수석, 두 번의 최고위원과 당대표, 3선 국회의원의 정치경험과 인맥을 동원해 광양·구례·곡성을 전지개척시키는 4선 의원이 되겠다”고 출마 포부를 밝혔다.

그는 “국회의원 사무실로 지역민을 오라가리라

는 민졸(民卒)정치 대신 국회의원 주인을 찾아가는 민주(民主)정치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부위원장은 “광주·전남·전북과 정부를 연결하는 오작교 역할을 할 것”이라며 “지방소멸을 해결하기 위해 투자 확대 등 국가대개조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곡성 출신으로 3선 국회의원을 지낸 이 부위원장은 대통령실 정무수석·홍보수석 등을 역임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평생어부바
광주문화신협

힘으로

튼튼한 금융의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광주문화신협이
평생어부바 해드리겠습니다

자산규모
1조5천억원

1993년 창립 이후
29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7%이상
지역사회환원

대표번호 1644-7990